

평화선언

모든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룩함에 있어 오직 비폭력의 외길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종교친우회(퀘이커)의 선택이다. 이것은 종교친우회 정신의 근본이요, 그 시초로부터의 길이다. 우리는 각 사람 속에 있는 하느님의 길을 인정하기에 그 누구도 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자행하는 살육을 지지할 수도 없다.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와 역량, 경륜을 동원할 때 비폭력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인도에 따를 때 가장 힘든 불화조차도 해결될 수 있음을, 예배 경험을 통해 직접 깨달는다. 침묵의 예배 속에서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해결의 길들이 우리 앞에 열린다.

우리에게 적은 없다. 우리는 각자가 영적 변화와 승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 자신의 위험을 무릅써 두려움을 초극하는 일이고 우리를 가르는 국경선을 넘어서 나아가는 일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여 이른바 “선제공격”을 자행하는 오늘, 우리는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다.

비폭력은 적극적 행동의 수행이다. 그것은 반대하는 사람을 상대로 대화하는 것,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비폭력 저항, 합법적 체제의 테두리 속에서의 인내력 있는 설득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비폭력의 투쟁방법이 가장 효과를 거두려면 시의를 놓치지 않고 초두에 일찍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견과 몽매한 아집, 경제적 불평등, 자원의 배타적 독점과 지배, 그 밖의 갖가지 불의는 폭력의 적대관계로 증폭되기 전에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분쟁이 있은 후에 파괴된 사회경제의 재건에 각별히 힘써야 하고, 미래의 분쟁을 막기 위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비폭력이 항상 정의를 이룩할 수는 없다. 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들이 비폭력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실은 확실하다. 비폭력의 방법은 가장 성공적일 때 그 실효성이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분쟁이 미연에 불발로 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프리카 대 호수 이니셔티브(American Great Lakes Initiative)가 대학살의 가해자들과 그 생존자들의 정신적 외상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수십 차례의 워크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조용하고 즐기찬 작업이 결국 르완다와 부룬디에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아내지 않았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작업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만은 알고 있다.

현대전은 무고한 희생자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를 피치 못할 “부수적 파괴”로 본다. 현대전은 민간인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황폐하게 만든다.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독극물로 파괴하고 지뢰를 대량으로 흩뿌려 놓는다. 우라늄을 비롯한 유해물질은 전쟁터가 농지가 된 뒤에도 그 곳에 오랜 세월 그대로 남아있다. 이뿐인가 전쟁은 사람을 살인자로 길들인다.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정신적으로 파괴하여 그 상처가 남게 한다. 인간 서로의 신뢰를 근본에서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치유불가능한 지경까지 훼손시킨다.

전쟁 종식을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른다. 이것이 한갓 헛된 꿈인가? 우리의 선조들은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섬으로써 조롱을 산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뜻을 이룩했다. 먼저 우리 공동체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나아가 이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노예제도 폐지에 성공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일에서 폭력을 뿌리뽑기로 했다. 우리의 가족관계에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에서, 지구환경관리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폭력을 뿌리뽑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의 평화로운 왕국을 지금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종교친우회 세인트루이스 월회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2006년 2월 12일
평화위원회 서기, 케빈 체스넛